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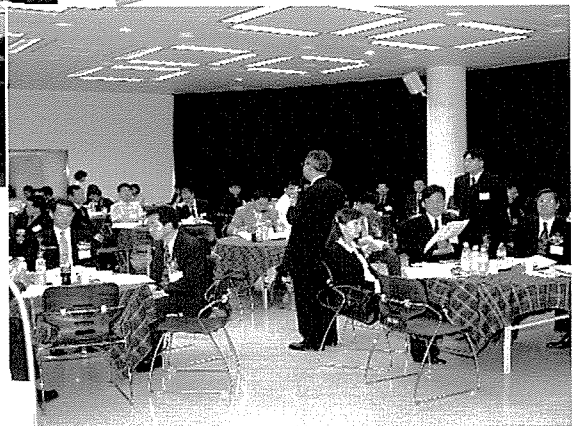
제4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광주·전남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6월 1일 현재 115개사)중 94개사가 참석했다. 주 안건으로는 2002년도 사업실적과 200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했으며, 의결사항으로 임원 선임안, 2002년도 수입지출결산안,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2003년도 제2차 이사회 전경〉



〈제4회 정기총회 전경〉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종득 기획홍보팀장의 2002년도 사업실적과 2002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의 보고를 필두로 시작한 이번 제4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4월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55)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3대 회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이 회장은 국내 광산업 발전에 더욱 분발해달라는 회원사들의 당부로 알겠다고, “국내외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며, 광산업 관련 투자와 경영, 미래 산업에 대한 예시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꾸려나가겠다”고 재선임에 따른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마련과 업계의 유대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광산업 육성주체로서의 위상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테크윈 이종구 사장, 우리로광통신 김국용 회장, IG이노텍 허영호 사장, 세협테크닉스 박정수 회장, 한국고덴시 김영수 사장, 한국단자공업 이창원 사장 등 6명이 비상근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새로이 대성전기 박재범, 이랜텍 이세용, 알에프텍 차정운, 케이텍정보통신 권철규, 프라임포텍 양순호, 동우옵트론 김영준,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한광 계명재, 고려오토론 조길천, 금동조명 박형구, 미래테크 배정빈, 애니셀 임영우, 하나기술 김도열 사장 등은 이사직을 연임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임안과 2002년도 수입지출결산안,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이 순조롭게 의결되어 제4회 정기총회를 마쳤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광기술과 제품 동향 및 시장조사, 회원사 친목도모 사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03 국제광산업전시회’와 ‘제3회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회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2003년도 제2차 이사회(6월 16일 오후 2시)에서는 상근부회장으로 전영복(61) 전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전영복 신임 상근 부회장은 광주시 서구청장·동구 부구청장·시 경제통상국장 등을 거쳐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EI**



〈전영복 신임 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 인터뷰〉

Q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광산업진흥회를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작금의 세계 경제의 불황과 함께 21세기 산업을 주도해 나가야할 광산업체 또한 어려움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유관기관 등은 광산업을 새로운 산업의 개념에 맞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재정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4년부터 추진될 광산업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더 끌어내는데 비중을 두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업체들의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Q 광주 광산업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지역의 광산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산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세성입니다. 재정이 열악해 설비나 R&D에 투자할 수 없고,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단계 추진과정으로 어려움을 벗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광산업관련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200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IT분야 및 광산업분야의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광산업 시장개척과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국내외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오신 광산업관련 업체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새로운 도약이라는 각오와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축적해온 마케팅, 기술개발, 신제품 연구 개발 성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벤처마킹과 함께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자체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2010년 세계 5위권의 광산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